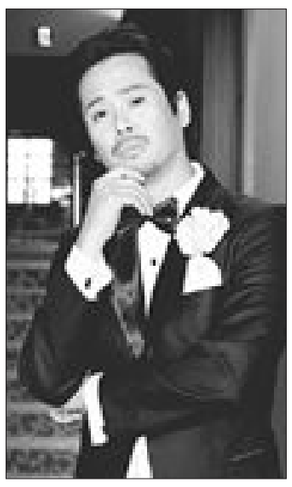
/ 주인공 뮤지컬 시카고 CHICAGO 인터뷰 /

10월 3일~5일 광주문예회관 무대

서울과 대구 공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뮤지컬 '시카고'가 오는 10월 3일~5일 광주문예회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에서 여주인공 벨마 캘리와 빌리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지현과 남경주와 인터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빌리 역

남 경 주

"주역·앙상블 조화 팀워크 완벽하죠"

뮤지컬 배우 남경주는 '무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관객의 환호를 이끌어낸다. 남 씨는 관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배우. 그리고 열정적인 연기와 노래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배우다. 뮤지컬 '시카고' 역시 그의 존재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시카고'의 매력은 독특한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배우가 극의 사회자가 되기도 하고 무대 위에 연주단이 등장하는 것도 신선하구요. 밥 포시가 안무한 춤 역시 독특하죠. 살인, 배신 등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트 있게 풀어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남 씨가 이번 뮤지컬에서 맡은 배역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변호사 빌리. 특히 여성 무용수들과 함께 부른 'All Care About'은 남씨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뮤지컬 넘버다.

"빌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떤 장애물도 없는 인물이죠. 목표를 향해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나려면 관객들이 빌리를 신뢰하고, 그의 자신감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표현하기에 꽤 까다로웠죠. 관객들을 배심원이라고 봤을 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남 씨는 '시카고'는 주역 배우들과 앙상블의 조화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번 팀은 이미 지난해부터 호흡을 맞춰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죠. 전 이번에 새롭게 투입돼 부담도 있었지만 오리지널 스텝과 함께 연습하면서 감을 잡았죠. 록시 역의 배해선씨와는 '에비타'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배우라 즐겁게 연기했어요. 해선씨는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고, 남을 잘 배려하는 성격이라 아주 편했어요."

"살인·배신 이야기 위트 있게 풀어내 부담 없이 즐기세요"

남 씨는 '시카고'에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의미있는 가사가 잘 어우러진 벨마와 마마의 이중창곡 'Class'를 꼽았다.

"영화 '시카고'에선 빌리 역의 리처드 기어가 탭 댄스를 추는 장면이 있는데 무대 버전엔 없어 조금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또 다른 매력들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남씨는 지난 6월 태어난 딸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올해는 뮤지컬 무대에 서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오는 12월 열리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벨마 역

김 지 현

"캐릭터와 잘 맞아 연기가 재밌어요"

'시카고' 서울·대구 공연에서 벨마 역을 맡은 김지현은 국내 팬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정원 등 스타급 연기자들과 어깨를 겨뤄 전혀 밀리지 않는 춤과 노래 실력을 보여준 김 씨는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연매출액 3천억원에 달하는 일본 '시키'에서 10년간 주역으로 활동한 명성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김 씨에게 '시카고'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작품에 새롭게 투입되는 입장에서 부담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또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고 시키에서 매일 트레이닝을 했지만 노래 중심의 작품에 출연했던 터라 '시카고' 처럼 심하게 몸을 움직이는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프로라면 어떤 역을 맡든지 그 역을 완벽하게 해 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김 씨는 무엇보다 벨마가 자신과 잘 맞아 캐릭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연을 지속하다 보니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 같더라구요. 벨마가 100% 자신을 오픈하는 스타일은 아니예요. 관객들로 하여금 저 여자가 내면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죠. 작품 마지막에서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연기하면서도 재미있어요."

김 씨에게 '뮤지컬 배우'로서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역시 '시키'에서의 활동이었다.

"'시키'가 45주년 기념으로 '캣츠'를 올리며 오디션을 실시했어요. 주요 배역에 모두 1천 800명이 몰려 들었죠. 입단 4개월 짜리 한국 배우가 그리자벨라 역을 따내니 엄청 화제가 돼더라구요. '시키'에서 기술적인 것도 배웠지만 배우로서 자세, 무대에 대한 자세를 배웠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All that Jazz 부를 때 가장 신나 2장 첫 장면 좋아요"

이후 김 씨는 그리자벨라 역으로 700회, '라이온 킹'의 라피키 역으로 800회를 공연했다.

"이번 작품에서 'All that Jazz'를 부를 때면 가장 신나죠. 사다리에 매달려 관객들을 맞는 2막 첫 장면도 좋아해요. 메리 션사인이 '누구나 착한 마음이 있어서 핑크색 안경을 쓰고 보면 착한 마음이 보인다'고 노래하는 대목은 늘 마음에 새기고 있구요."

김 씨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니스비엔날레가 귀족적이라면 광주비엔날레 교육적 역할 커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크리스천 모그너 박사

"비엔날레는 개최 장소의 특수한 사회 현상을 반영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가 귀족적이라면, 광주비엔날레는 교육적인 역할이 큰 시민 참여형 전시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 행사로 성장하면서 해외 유수 대학교의 연구 대상이 됐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진이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를 연구테마로 선정해 최근 현지답사차 광주를 찾았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크리스천 모그너(Christian Morgner·사진·사회정치학) 박사 일행은 지난 21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비엔날레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 유명 비엔날레가 열리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카셀도큐멘타,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루비엔날레에 대한 연구를 끝마쳤다. 또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비엔날레를 리서치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을 둘러본 뒤 지난 23일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 등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갖고 기획 의도와 광주비엔날레의 역사 등을 취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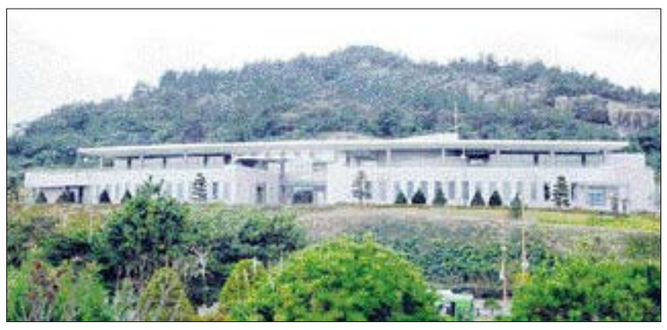
크리스천 모그너 박사는 "비엔날레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면서 "전 세계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다양한 관람객들이 이들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베니스비엔날레에는 귀족적인 성향이 남아있고, 카셀도큐멘타는 독일인 중심의 세계관이 짙게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는 "광주의 역사성(5·18민주화운동)을 잘 반영했다"면서 "학생들의 관람이 이어지는 등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점 등은 여타의 비엔날레와 차별화되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문학관 개관 1주년 '2008 목포! 문학 축전'

10월 10~12일



목포출신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작가의 문학세계와 삶의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목포문학관<사진>이 개관(10월9일) 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0~12일까지 '2008 목포! 문학 축전'을 연다.

'문학의 향기, 문학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공연, 체험, 경연대회 등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문학의 향연'을 주제로 한 공연마당에서는 노인극단 이팔청춘의 '갓바위의 효심 공연'(10일 오후 3·5시)과 박화성 선생의 작품 '호박'(10~11일 오후 6시)이 무대에 올려진다.

또 시와 노래를 함께 즐기는 문학 콘서트 '목포의 시인들'(11일 오후 5시)과 부모와 함께 동화 구연과 역할극을 체험해보는 '동화여행'(11일 오후 1시, 12일 오후 4시30분)도 열린다.

'문학! 대중을 만나다'에서는 '소설가 한승원과의 만남'(11일 오후 3시 30분)이 마련되며,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연회'(12일 오후 3시)와 '문학관의 역할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한 문학 특강(12일 오후 1시)도 열린다.

문학체험마당인 '문학아 놀자'에서는 '책과 함께 만드는 푸드아트 테라피' '동화 연극놀이 체험전' '동화 속 주인공 분장체험' '문학 퍼포먼스-마임' 등이 문학관 일대에서 펼쳐진다. 또 차범석의 희곡 작품인 '산불' '연오랑세오녀' 등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밖에 '가족 백일장 대회'(12일 오후 1시), '김우진·박화성·차범석 인물 그리기 대회'(11일 오후 2시), '작가에게 편지쓰기'(10일 오후 2시 30분) 등 문학경연 대회도 다양하게 치러진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민예술대학 수강생 모집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하는 제 16기 광주시민예술대학이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학, 건축, 국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시민예술대학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의에는 천득염(건축·전남대 교수), 오상조(사진·광주대 교수), 김광복(국악·전남대 교수), 정철(연극·동신대 교수), 김원중(대중예술)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며 매주 두차례 오전 10~12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2만원.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